

August Konkel 박사, 잠언, 세션 9

© 2024 August Konkel 및 Ted Hildebrandt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세상을 위한 지혜, 잠언 8장입니다.

우리는 잠언의 또 다른 막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관련된 지혜의 개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잠언 8장에서는 이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독교 교리 측면에서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니케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전체 질문과 주로 아타나시우스가 수행했던 아리우스파에 대항한 투쟁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가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지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 즉 지혜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는 지혜의 화신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과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는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암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지혜의 근원과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길 중 첫 번째로 나를 얻으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에게 시작이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와 다른 사람들이 정의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요한복음과 신약성서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은 구약성서의 야훼와 동일시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야훼를 본 이사야와 동일시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요한의 생각에는 야훼와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이 장을 근거로 예수는 지혜와 마찬가지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쎄, 그것은 실제로 이 장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의 관심은 지혜에 관한 담론이다.

지혜에 대한 공개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찬미를 4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혜가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 그것이 사회에 가져오는 이점.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창조의 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모든 인류에게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지혜의 호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지혜는 부르짖는 것으로 묘사되며, 질문으로 표현됩니다.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해가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길을 따라 높은 곳의 정상에 있습니다.

그녀는 길을 따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도시로 갈라지는 차선이 있는 다른 장소와 그녀가 부름을 주고 있는 문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있는 것처럼 지혜는 대중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나요? 글쎄요,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시편인 시편 49편 1절부터 3절의 매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들어, 내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지혜는 언약을 알고 듣는 사람들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는 무엇을 알거나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녀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뒤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귀하다. 그녀는 가장 좋은 금보다 선택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모든 동일한 모티프가 여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혜를 그토록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혜가 있는 것은 복잡한 상황과 일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그녀는 교활하고 신중함을 갖고 있지만 최선의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결말로 이어지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을 합니까?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왕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아에 있는 곳, 그가 환상을 본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는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카봇의 백성입니다. 즉, 무겁다는 뜻이다. 자, 그것은 수가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귀찮고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것이 솔로몬의 통치를 특징짓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숙고하고, 이해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사회질서의 기초이다. 정의를 판단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물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에게 다가온 첫 번째 사건은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두 여자가 둘 다 살아 있고 살아남은 아이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일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부와 명예라는 매우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두 명사가 실제로 하나와 다른 하나의 변형인 그런 종류의 문구 중 하나입니다. 명예로운 부는 정직한 수단을 통해 얻은 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것은 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실제로 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열매는 윤리적 행위, 지적 이해, 물질적 풍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12절에서 그녀는 “나는 지혜니라”로 시작합니다. 통찰력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Wisdom이 자신에 대해 한 짧은 연설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지혜가 여전히 말하고 있는 설명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가 창조 질서 전체의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지혜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과 이 구절들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혜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창조질서 확립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얻으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창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혜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지혜를 얻는다는 의도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설명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작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와 일종의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존재하게 되고, 질서에 따라 존재하게 되며, 질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수평선이 있는 땅으로, 하늘에서 다시 땅과 바다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아이입니다.

아몬(Amon)이라는 단어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관련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을 기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어 아몬 과 관련하여 표현된 수많은 생각의 일부를 눈치채지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 음, 본질적으로 세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몬이 아카드 외래어에 기초한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서 에는 실제로 지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리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로 된 다른 언어, 관련 언어의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몬 과 관계가 있는 아카드어 단어는 서기관, 학자, 장교를 더 많이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언에 있는 설명과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아몬은 아멘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것은 마치 지혜가 항상 거기에 있고 지혜가 충실하게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번역 됩니다 . 그런데 정말 아몬은 아이를 키우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

그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키우셨고, 그 자녀를 통해 모든 창조질서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말로 돌아가서 이 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그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의 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지혜는 삶과 죽음의 선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지혜는 우리 모두를 축복받은 자들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잠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세상을 위한 지혜, 잠언 8장입니다.